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화중



한국인구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4천600만 명에서 5천100만 명 수준일 때에 경제규모, 복지수준, 생활 환경에 가장 적절하다고 한다. 2005년 우리나라 인구가 4천814만 명이니가 적정 수준인 셈이며, 이 인구를 유지하려면 매년 87만 명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4년에 48만 명, 2005년에는 44만 명만이 태어나 적정선의 절반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

는 데에 미리미리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이었을 때부터 대비했어야 할 일이다. 시작에는 늦은 법이 없다고 했으니, 늦었지만 참여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정의 주

행복한 출산을 향하여

부부가 결혼하여 두 명의 아이를 낳아야 현재 인구가 유지되리라는 것은 매우 평범한 상식이다.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감안해서 2.1명을 낳아도 우리나라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이었다. 이는 국가공동체의 쇠락과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로 예고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이다.

요과제로 채택해서 대책수립에 착수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이처럼 정부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격정이 크다. 그것은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민들이 나서 주어야 해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굳이 인구통계를 빌리지 않더라도 인구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변모해 온 모습을 통해서 모두 알고 있다.

이다. 그 재앙이 나와 후손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답은 한가지이다. 아이를 낳아야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할만한 경제적 여

러운 일이다. 양성평등의 밝은 가정을 만드는 데에 합심해야 할 일이다.

이런 측면들은 단순히 정부가 마련하는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적 시설 및 제도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고 민간의 더 큰 역할이 요구되는 문화적·정신적 측면의 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지난 11월 15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여성단체협의회 지도자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울림캠페인 조경기장에서 '출산위기 극복은 여성의 힘으로'라는 주제의 전국여성대회를 가진 바 있다. 정부와 민간 모두가 나서서 지혜를 짜내고 힘을 모아야 한다.

자녀가 많은 것을 다복하다고 했던 시대 있었다. 그러다가 많은 자녀가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부담이 되기도 했다. 이제는 자녀가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기여로 변했는데 아직도 가정에는 부담이다. 근래에 여류는 가정의 주부들 가운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손자·손녀를 보게 되면 딱 가신다고 한다. 자녀가 가정의 진정한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국가도, 사회도, 기업도, 학교도, 모두 함께 나설 때이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한국여성단체 협의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경제’ 손놓은 정치권, 국민들만 고달프다

정치권이 한심스럽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전투구를 벌이며 결별수순을 밟고 있고 야당은 모든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넘기며 1년도 더 남은 대선에 몰두하고 있다. 국정현안에 대해 서로의 주장만 있을 뿐 책임지거나 타협하는 모습은 없어 국민들만 피곤하다.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경제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에 제시한 5.3%보다 0.9%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내 경제연구소의 예측도 한국개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각각 4.3%, LG경제연구원 4.0%, 현대경제연구원 4.2% 등 4%대 초반이다.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1.1% 성장했지만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제로(0) 성장에 그쳤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올해 인상분 3.9%의 2배 가까운 6.5%나 오른다. 정

‘물류대란’ 현실화 되는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용제로 접어들면서 광양항의 물동량이 평소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물류대란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 각지에 서 비조합원 화물차에 대한 방화와 유리창 파손, 대부투척 등 불법행위까지 자행하고 있어 국가 물류망 자체가 완전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15일간만 지속돼도 부산항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 특히 연말에 수출·입 물동량이 집중돼 이번 파업의 후유증은 더욱 심할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을 일으켜 국가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화물연대가 또다시 총파업에 들어간 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다.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업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표준요금제 및 주선료 상한제 도입 등 운임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운송사업 진입규제 완화로 운송사업자가 급

증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사실을 모른바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시장원리를 무시한데다 보험설계사 등 사장이 비슷한 다른 직종 종사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등 설득력이 약하다.

더욱이 불법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태는 공감할 수 없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3년 전 총파업으로 부산항에서 외국선사들이 대거 이탈해 부산항의 물동량이 세계 5위로 전락하는 등 그 후유증을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가경제는 갖가지 악재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류대란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는 헤아릴 수 없는 늪에 빠질 수도 있다. 화물연대는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불법파업은 국가경제는 물론 화물연대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조 칼럼

조영호



판사도 임관받아 산더미 같은 일에 파묻혀 앞만 보며 산지도 어느덧 7년. 제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나이 마흔을 넘기고 보니, 자꾸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잡힌 것이 징역 10년을 살만한 죄가 되는지 그때 나는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지만 사람을 마음어 무겁지는 않을 것이다. 그 후 그가 청송감옥으로 보냈던 사회보호법은 폐지되었다.

나의 판사 성적표

들어가기 전에 살인범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호기심 어린 생각을 펼쳐버리게 어려웠다. 자기 부인을 살해한 후에 시체를 토막낸 사람이었다.

서 마흔이 넘어 주책같이 나에게도 흘러내리는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멋대로 살아온 가슴 아픈 여자친구와 사형수의 가슴 저민 사랑이야기였다.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가득한 사형수가 뒤늦게 사랑을 통해 삶에 희망을 가져보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물론 소설이지만, 재판은 하변 할수록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기고

조정래



‘고객만족’, ‘고객감동’하면 삼성그룹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 및 A/S를 떠올리게 하는 광고의 카피다. 삼성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국가예산과 맞먹는 135조 원, 국가예산(세금)의 8%를 차지하는, 2위 기업이 추격을 단념할 정도로 독주하고 있는 기업이다. 삼성의 영향력은 경제분야에만 머물러 않는다.

는 게 아니라 재벌의 지배하에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없게끔 하는 식민정신의 표상이다. 또한 지난해 건교부의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공표 이후 시행한 양업계 간 첫 계약도 갖은 구실을 보여 3개월이 넘도록 미뤄다다라던 금년엔 자동차보험 협이 적자라며 손해를 만을 내세우며 이에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 그리고 타손보사를 앞세워 협상체고 타손보사에서는 ‘시장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화재가 계약을 시행하면...’식의 핏공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인의 목을 쪼고 있다.

“함께가요 삼성...” 정비업자의 하소연

상보장법(이하‘자배법’)의거 보험사업자들과 정비사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했다. 삼성화재를 위시한 손보사들이 97년 이후 7년여 동안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동결, 양업계간 분쟁이 지속되어 2003년도에 의원입법하여 영세정비업자를 보호한 것이다.

기업적자가 크다면 난립되어 있는 손보사도 대통합구조조정을 해야한다. 그래서 자동차정비업체도 적정요금을 받고 손보업계를 대신해 보험가입고객에 최선의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다. 이제 삼성화재는 전편으로 나와 손보사가 안고 있는 현안을 풀어야 한다. 정비사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전국 곳곳에 있는 정비사업자의 연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상황을 동반자적 입장에서 헤아려야 한다. 정비사업자도 손보사와 상생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국가 대표기업이라 할 것이다.

포장이사 짐 옮길때 내 집처럼 성의껏 일했으면

동생이 70만원을 주고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이사를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이삿짐을 다루는 직원들이 너무 불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다.

냐? 그랬더니 도리어 “이사를 할 때 그 정도 손상도 안 입으려면 직접 하는 게 낫다”고 했다. “미안하다, 실수다, 조심하겠다”는 말을 기대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으니 불쾌했다.

교육의 빈부 양극화 막는 대책 서둘러야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다니는 아이들 돌에 간신히 영어학원 하나만 보내는데, 일부 학생들은 영어·논술·수학·피아노·미술·태권도까지 그야말로 ‘확원 쇼핑’을 한다고 한다.

錢有學 無錢無學)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제라도 ‘빈곤층 특별전형’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우선 국·공립대학부터 실시한 뒤 사립대학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전국의 모든 대학들로 확산시켜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양극화·빈부의 양극화’를 막는 길이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지난달 29일 금강산은 추웠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금강산은 등적까지 눈이 쌓여 있었다. 북핵실험 이후 관광객들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었다. 아무리 비수기라지만 올해는 눈이 쌓일 정도로 추웠다.

기압과서, 수정같이 맑은 물로 수려한 절경을 자랑했다. 남북 언론인들은 호수를 따라 난 2km 정도의 길을 내리히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 금강산 온정리에서는 의미깊은 행사가 열렸다. 바로 남북한 언론인들이 참가한 대규모 토론회. 남쪽에서 115명, 북쪽에서 50여명의 언론인이 참가했다. 남북한 기자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945년 10월 열린 ‘조선기자대회’ 이후 처음이다. 무려 61년만이다.

처음에는 서먹했다. 이내 침묵이 깨졌다. 일종의 동업자 의식이 발동된 것일까. 조선기자동맹 간부인 ‘이 선생’은 5살 난 손자 사진을 꺼내보이며 자랑에 열을 올렸다. 대학 다니는 아들의 장래

삼일포 산책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와 북측위원회 언론본부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6·15선언 실천과 남북언론인들의 역할’. 남북 언론인들은 토론 끝에 전쟁 위험과 민족분열적 보도 배격 등 4개항의 공동성명도 냈다.

문제를 고민하기도 했다. 보통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삼일포 산책길의 끝은 ‘단풍각’이라는 호숫가 건물이었다. 남북 언론인들은 막걸리와 꼬치구이를 나누며 노년의 정담을 이어갔다. 물론 핵 실험에 대한 강변이나 남북 언론에 대한 비판이 빠지는지는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놓고 감성적 태도라거나 북측이 이용당했다며 비판하는 쪽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반세기를 넘어 열린 이번 만남의 의미를 축소한다면 또 다른 만남을 위해 그만한 세월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토론회가 끝난 뒤 남북 언론인들은 함께 관광광경 중 하나인 삼일포 산책에 나섰다. 삼일포는 울창한 소나무와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Table with Kwangju Ilbo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details.